

세계시민교육이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이숙정,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The Influence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n Self Reflection and Global Citizenship of College Students

Sook-Jeong Lee, Hyeyoung Kim*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교양교육에서 실시하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소재 S대학에 교양필수 교과를 수강하는 14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한 학기 동안 실시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 통계, 빈도 분석, 상관 분석, t-검증,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5.0 프로그램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 모두 사전-사후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상관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자기성찰은 세계시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추정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이슈들 중에서 학생들은 환경관련 문제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교육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학에서의 교육경험이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시민교육이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책무성의 한 부분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제안하며, 교육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위한 교육전략의 모색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on the self-reflection and global citizenship of college studen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a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was conducted for 145 students taking liberal arts courses at the S University in Seoul one semester, and pre and post-tests were conducted as part of the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involving frequency, correlations,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using the SPSS 25.0 program. The main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both self-reflection and global citizenshi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e and post analyses. Seco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reflection and global citizenship, and the corresponding correlation coeffici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self-refle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global citizenship, and the estimates wer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Last, it was found that the college students considered environmental issues as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educational tasks among variou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al issues.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educational experience at the Univers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global citizenship based on self-reflection.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as to be offered at the Universities owing to their accountability to nurture human resources. The present study also gives implications for finding an educational strategy for the advancement of educational programs.

Keywords : Global Citizenship, Self-Reflection, Educational Experience, College Students, Educational Effects

본 논문은 2021년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용 수정,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Hyeyoung Kim(Sookmyung Women's Univ.)

email: hyeyoung@sookmyung.ac.kr

Received July 9, 2021

Revised August 9, 2021

Accepted November 5, 2021

Published November 30, 2021

1. 서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정보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은 미래사회의 중심으로 성장해야 하는 대학생의 성찰 능력과 사회적 능력을 그 어느 때보다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대체되지 않을 전문인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하며, 동시에 대학은 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숙고하여 빠르게 교육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다. 더 이상 특정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하는 교육으로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에 현명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인재양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창의와 융합의 교육시스템 구축이 대학의 최대 과제가 되었다.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개인적 차원에서 필요한 자기성찰(self-reflection) 역량이다. 자기성찰은 개인의 경험과 관계된 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자신과 타인 간의 경험과 가치관의 차이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기 때문에[1], 다름에 대한 인정, 다양성에 대한 인식,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 등에 대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기르는데 필요한 역량이다.

이러한 자기성찰은 대체로 메타인지 과정을 통한 자기이해를 전제로 하므로 자기성찰의 기회에 많이 노출될수록 자기자신을 객관화하고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증가하여,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갖게 된다[2]. 특히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내면적 성찰은 사회로의 성공적인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혼란과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에서 성찰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2,3].

다른 하나는 사회적 차원에서 필요한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 역량이다. 세계시민성은 시민이라는 지위에 기대되는 자유, 권리, 책임,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덕성의 총체로 볼 수 있다. 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육성되어야 하는 역량으로[4], 세계적으로 공동의 관심과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슈들을 인류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여 지구촌 사회의 공존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에 기인한다.

2015년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미래교육의 핵심 키워드로 지정되었고,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포함되면

서 글로벌 교육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5]. 이에 따라 초·중등학생 대상의 세계시민교육과 관련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대학생과 성인 대상의 교육과 연구들은 아직 상대적으로 부족하다[6].

Nussbaum은 대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교과들을 이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학생들이 컴퓨터 과학이나 엔지니어링 등을 전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에서도 역사, 철학, 문학 등 세계시민성 향상을 위한 기초 교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7]. 최근에 수행된 관련 선행연구들도 세계시민교육이 전 세계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태도, 행동을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8].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최근 몇몇 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실시되고 있다[8-11]. 2011년 경희대가 국내 대학에서 가장 먼저 시민교육을 교양필수 교과로 도입하였고, 이후 숙명여대 등도 교양필수 교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공주대, 서울교대, 한동대, 등에서 교양교과로[9], 선문대 등에서 교과 또는 비교과로 운영하고 있다[4]. 이에 따라, 교육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도 보고 되고 있는데, 시민교육을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효과를 분석하거나[4], 대학교육에서 환경담론과 세계시민교육의 연계가능성에 대한 연구[7]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2018년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세계시민교육 대학강좌개설 지원사업을 통해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대학교육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9]. 그러나 아직 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양하게 제공되지 않기에, 관련 연구의 축적도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사례는 S대학에서 비교적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과 프로그램이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필수 프로그램으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역량 모두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이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발견하여 해결하려는 실천과정이 포함된다.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이 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필요역량으로 제안되는 만큼[3,7,9], 대학에서 실시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과 자료의 축적은 관련 교육체계의 고도화와 교육전략 모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참여가 학생들의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개인의 성찰능력이 세계시민성에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수집절차

본 연구는 준실험연구로 세계시민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처치 사전과 사후의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서울 소재 S대학에서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양교과를 수강하는 1학년 재학생들을 편의표집하였다. 총 145명이 연구대상이며, 연령 범위는 18세-23세 ($M=19.29$, $SD=.89$)이다. 표본이 여자대학이므로 연구 참여자는 모두 여성이며, 교양교과 특성상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어문계열,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예체능계열 등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자료수집은 2020년 1학기에 진행되었다.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학기초와 학기말에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성찰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개발하고 타당화한 자기성찰 척도를 사용하였다[13]. 본 척도는 자기탐색, 타인이해, 타인탐색, 자기이해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 alpha는 사전검사, .839, 사후검사, .826 이었다.

둘째, 세계시민성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대상으로 하여 개발하고 타당화한 세계시민성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14]. 시민의식, 다국적 의식, 지구공동체 의식의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 alpha는 사전검사, .857 사후검사, .811이었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성 교육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서술의견 문항 한 개를 추가하였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전-사후 검사 결과의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기성찰이 세계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이슈를 알아보기 위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5.0이었다.

2.4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S대학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양필수 교과로 운영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2015년에 개발되어 201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평가기준 등은 매년 담당교원들의 워크숍과 피드백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개선하고 있다. 6년째 시행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 역시 연구보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1].

한 학기에 약 1,200여명의 학생들을 35개 내외의 분반으로 구분하여 분반별로 35-40명의 학급크기로 운영한다. 교과 특성상 관련된 지식의 전달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이 글로벌 공동체의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시민역량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지에 대해 학습자와 교수자가 함께 토론하고 탐구하는 입문 수업의 특성이 강하다.

15주 2학점으로 구성된 본 교과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주요 주제 10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회정의, 인권, 지속가능발전 등의 주요 주제들 또는 학생들의 관심주제들은 2-3주차에 걸쳐 진행되기도 한다. 평가방법은 Pass/Fail이며, 평가내용과 기준은 보고서, 퀴즈, 출석, 발표 등으로 이루어진다. 교양필수 교과이므로 분반별 수업내용과 평가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있다. 수업전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분반별 학생들의 특성과 교수자의 자율성은 20-30% 내외에서 고려된다.

2020년 1학기의 경우, 급작스런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되었다. 직접 대면하여 토론하거나 소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비실시간/실시간 원격수업을 병행하였다. 비실시간 수업은 수업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였으며, 실시간 수업은 ZOOM수업을 활용하였다. 주로 이론적인 내용들을 비실시간으로, 토론과 발표, 질의응답 등은 실시간 ZOOM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방식으로 토론과 협업을 진행하였으며, 심층탐구 및 문제해결의 방식에 따라 온라인 카드뉴스, 블로그 등도 활용하였다.

Table 1.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Week	Contents	Activities
1	Introduction	120 Minute Lecture+Discussion+Activities+Feedback
2	Qualities and Competencies of Global Citizens	
3	Self-Understanding & Self-Reflection	
4	Relations	
5	Empathy & Communication	
6	Leadership	
7	Problem Solving	
8	Mid-term	
9	Global Citizenship Ethics & Responsibility	
10	Social Justice & Human Rights	
11	Sustainable Development & Environment	
12	Multi-Cultural Society & Leadership	
13	Presentation(1)	
14	Presentation(2)	
15	Term-paper	

3. 연구결과

3.1 사전-사후 검증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후의 비교를 위해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성찰의 하위요인과 총합, 그리고 세계시민성의 하위요인과 총합 모두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Table 2. Results of Pre-test and Post-test

	Pre-test		Post-test		t
	M	SD	M	SD	
Self-exploration	3.71	.42	3.88	.71	-10.90***
Other-awareness	3.38	.39	3.49	.38	-7.61***
Other-exploration	3.77	.39	4.01	.35	-11.45***
Self-awareness	3.67	.50	3.90	.41	-10.18***
Total of Self-Reflection	3.63	.32	3.82	.27	-16.17***
Sense of Community	3.30	.55	3.44	.61	-7.68***
Sense of Multi-culture	3.65	.63	3.73	.67	-6.14***
Citizenship	4.20	.42	4.37	.37	-11.64***
Total of Global Citizenship	3.72	.41	3.84	.43	-14.03***

*** $p < .001$

3.2 자기성찰이 세계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두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관계는 .59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두 변인의 정적 상관을 확인한 후, 자기성찰이 세계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회귀모형이 산출되었고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이 결과는 자기성찰이 세계시민성을 예언하는 의미있는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n Global Citizenship of Self-Reflection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t	p
Self-Reflection	Constant	.27	.40	.66	.51
	Global Citizenship	.94	.11	8.86	<.001
ANOVA					
	SS	df	MS	F	p
Regression	9.26	1	9.26	78.48	<.001
Residual	16.88	143	.12		
Total	26.14	144			
$R = .60, R^2 = .35, SE = .34, p < .001, \text{Durbin-Watson} = 2.03$					

3.3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분석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하고 긴급한 이슈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빈도분석을 하였다.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염병, 저탄소, 기후위기, 미세 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권(소수자, 젠더, 난민 등), 양극화(교육, 부, 기회 등), 다양성(다문화, 국제이해, 인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Table 4. Frequency Analysis of Responses

Issues	Frequency(%)
Environment (contagion, low carbon, climate crisis, micro plastic...)	67(46.20)
Human rights (minority/ gender rights...)	39(26.90)
Polarization (education, wealth, opportunity...)	21(14.48)
Respect of diversity (multi-culture, international understanding, race...)	9(6.21)
Consideration, Respect, Communication...	5(3.45)
Peace, Media Literacy, Cyber culture...	4(2.76)
Total	145(100.0)

4. 논의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자기성찰과 세계시민성의 변화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역시 대학이 전공교육 뿐 아니라 교양과목이나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2,11]. 이것은 학습자들이 대학에서의 교육경험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의식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자기성찰은 세계시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며, 동시에 현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시민의 기본적인 자질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찰적 인지능력이 세계시민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세계시민성 교육이 대학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환경문제와 관련한 세계시민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비롯하여 저탄소, 기후위기, 미세 플라스틱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범위는 어느 정도 합의되어 있지만,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조정과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교육대상의 특성뿐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긴급하고 필수적인 교육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고 유연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세계시민성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권리보다는 책임을, 차별보다는 평등을, 개발보다는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학이 단순한 취업 준비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고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한 자기성찰의 기회와 가치관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본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체험중심의 세계시민교육이 원격수업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는 세

계시민교육과 같이 복잡하고 상호연관된 주제가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학습방법으로써 원격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성과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6]. 본 연구가 하나의 연구사례가 될 수 있으며, 추후 대학 교양수업에서 원격수업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점차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세계시민성 함양이라는 거대 담론을 핵심적인 교육내용으로 채워가고 있고 초국가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이 교육정책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4, 15].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직은 인간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는 능력, 즉 무엇이든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함, 창의력, 공감 등은 자기성찰의 통해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은 정보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양극화되는 그리고 점점 불거지는 글로벌, 글로벌 한 윤리적 이슈에 대한 책임의식과 해결능력 함양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한계이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교양필수 교과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여자 대학생만 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의 다양성의 제한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일반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표본의 범위를 조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효과에 대한 사전-사후 분석의 한계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시적인 처치의 영향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계시민성 의식과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J. J. Park, M. L. Millora, "The relevance of reflection: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role of reflection in ethic of caring, leadership,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 53, No. 2, pp. 221-242, Sep. 2012. DOI:<http://dx.doi.org/10.1353/csd.2012.0029>
- [2] S. Lee, "An analysis on the difference of self-authored career decisions of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by use patterns of urban forest", *Korean Journal of Forest Recreation and Welfare*, Vol. 19, No. 2, pp. 53-62, June, 2015.
- [3] S. Lee, J. Shin, "Exploring the impact of reflective writing on self-authorship development: A case study

- in a women's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8, No. 6, pp. 337-374, Dec. 2014.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8100>
- [4] H. Kim, J. Yu,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Citizen and Humanities, Vol.38, pp.9-32, Feb. 2020.
 DOI: <http://dx.doi.org/10.22842/kgucfh.2020.38.9>
- [5] S. S. You,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s global education agenda", in D. I. Kim(Ed.), "Designing the Future of Education", Hakji-sa, Republic of Korea, pp. 173-193, 2015.
- [6] H. R. Sim, C. Kim, "Research trends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South Korea: An analysis and its implication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45, No. 3, pp. 5-29, Oct. 2018. DOI: <http://doi.org/10.22804/jke.2018.45.3.001>
- [7] M. C. Nussbaum, "Not for Profit: Why Democracy Needs the Humanities-Updated Ed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USA, pp. XIX-XX, Nov. 2016.
- [8] J. H. Kim, "Critical understanding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Post 2015 context",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Vol. 47, No. 1, pp. 59-88, Mar. 2015.
 DOI: <http://doi.org/10.35557/trce.47.1.201503.003>
- [9] B. Cha, S. Seong, Y. Ha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the discourse environment in the university setting: Focused on the organizing process of course of studies", Literature and Environment, Vol. 19, No. 2, pp. 235-260, June. 2020.
 DOI: <http://doi.org/10.36063/asle.2020.19.2.010>
- [10] H. B. Park, "Why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duin News 2016.11.15. Available From: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36> (accessed Mar. 5, 2021)
- [11] S. Le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and improvement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10, pp. 433-443, October, 2017.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7.7.10.040>
- [12] S. Lee, H. Yi, O. Choi, "A study on global citizenship and Saemaul Spirit among college students: Differences in major, college year, and characteristics of overseas experiences and volunteering experiences",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and Administration Studies, Vol. 34 No. 3, pp. 187-208, Sep. 2020.
 DOI: <https://doi.org/10.18398/kjlgas.2020.34.3.187>
- [13] J. Y. Hwang, "The self-reflection scale development and a path model of self-reflection to well-being", PhD.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1.
- [14] E. Chi, K. Sun, "Analyzing the construct of global citizenship and related variable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Vol. 39 No. 4, pp. 115-134, Dec. 2007.
 DOI: <http://doi.org/10.35557/trce.39.4.200712.006>
- [15] J. H. Kim,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s a global policy agenda", Journal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Vol. 15 No. 2, pp. 47-95, Apr. 2020.
 DOI: <https://doi.org/10.35179/jeiu.2020.15.2.47>

이 숙 정(Sook-Jeong Lee)

[정회원]



- 2005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일
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8년 3월 ~ 2010년 2월 : 숙명
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책
임연구원
- 2011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
학교 기초교양학부 교수

<관심분야>

교양교육, 교육심리

김 혜 영(Hyeyoung Kim)

[정회원]



- 2009년 9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
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09년 12월 : 한국정보통신정책
연구원(KISDI) 연구원
- 2010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
학교 기초교양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역량교육, 시민교육, IT전략, 교양교육과정